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가족을 잃은 우리가 죄인인가요? 유족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조연주 기자 | 승인 2024.07.12 10:08

“아리셀 중대재해 가해자 나와라” 대책위-유족, 사측에 교섭 촉구  
“유족들의 요구는 정당, 끝까지 함께”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  
경기 안산시흥지역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보' 현수막 걸러

## “아리셀 중대재해 가해자 나와라” 대책위-유족, 사측에 교섭 촉구

1차 교섭이 지난 지 일주일도 지났지만,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2차 교섭과 관련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1차 교섭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교섭을 위해 빠르게 실무자를 정하고 피해자 측과 논의해 다음 교섭 날짜를 정하는 것을 합의했지만 지금까지도 가해자 측의 실무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에스코넥,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 아리셀 본부장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개별 합의만 시도하며, 지난 교섭에서 협의한 실무자 선정과 성실한 교섭의무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책위와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언론의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라며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인가?”라고 질타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2차 교섭이 열리고 가해자 측의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죄를 원한다”고 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대책위



아리셀 중대재해 대책위

### “유족들의 요구는 정당, 끝까지 함께”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

열한번째 시민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위로의 말과 함께, 유족의 요구는 정당하며, 그 싸움에 함께하겠다는 시민들의 약속이 이어졌다.

‘경계인의 목소리’ 박동찬 소장이 처음으로 발언했다. 박 소장은 지금 중국 유가족들의 통역을 담당하며 입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 박 소장은 “피해자 가족들과 생활한지 일주일인데 이곳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이름 석자 소개할 시간도 없었다. 저를 ‘통역관님’이라 부르며 맞아 주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냥 ‘동찬이’라고 불러 달라”고 인사했다.

박 소장은 “그간 수 백, 수 천의 상담을 해왔는데 이번 참사만큼 힘든 시간은 없었다. 이번 참사 앞에 자괴감이 든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권리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은 무슨 자격으로 이주민, 이민을 말할 수 있나? 화성시와 아리셀이 말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그대로 옮길 수 없었고 피해자 가족의 격한 감정을 그대로 옮길 수도 없었던 나는 통역사의 자격이 없다.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여기 온 순간부터 저 또한 너무 아프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겠다. 저도 씩씩하게 싸울 테니 어머니 아버지도 끝까지 힘을 내시라”고 위로했다.

이준원 화성 습지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추진단장도 추모제에 참석했다. 이 단장은 “오래전부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행정의 불철저함이 이번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사회엔 더 기대할 것이 없다. 끝까지 희생자 가족들이 가지는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해야 한다. 반드시 승리하길 바라며 화성의 시민들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활동가들도 자리를 찾았다. 이들은 “배를 굶아 가며 싸우지 말자”라고 준비해온 간식을 전달했다. 현재 유가족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에 간식 등의 지원이 끊어진 상황이다. 꿀잠 활동가들은 “가해자들이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 그만큼 저들은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싸우시라”고 힘을 보탰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원산업 안산지회가 함께 하며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그러면서“40여 명의 조합원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이 투쟁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김재형 님의 유족 공민규 님도 발언했다 “슬픔을 억누르며 치유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 있는 유족들에게 ‘지원을 끊겠다’는 등 희생자 가족을 버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우리가 죄인인가? 매일 이곳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힘을 주고 계신다. 함께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가 실현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오늘 추모제에서는 참사에 희생당한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사연을 소개하며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희생자 이름 부르며 소개하는 동안 좌중 모두가 눈물 흘리고 유가족은 서로 토닥이며 위로했다. 추모제 후반부에 도착한 유가족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해 다른 가족들이 부축하는 일도 있었다.



아리셀 중대재해 대책위



아리셀 중대재해 대책위



아리셀 중대재해 대책위

한편,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에 아리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보를 받는 현수막이 걸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참여로 경기 안산시흥지역 곳곳에 걸린 현수막에는 '참사 희생자들이 왜 사망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 방식, 파견, 업무방식 등 아리셀 참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